LG전자, 영등포 쪽방촌에 김치 5200kg 전달

임직원들 직접 김장… 무료 급식소 열어
김치톡톡냉장고 판매금액 적립해 나눔

LG전자가 김치냉장고 '김치톡톡'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 온기를 전했다.

LG전자는 6일 서울 영등포 일대 쪽방촌 500여 가구에 김치와 반찬 등 5200kg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김치와 반찬은 LG전자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것이다. LG전자는 무료 급식소도 열고 주민들에 따뜻한 한끼를 제공했다.

이번 나눔은 디오스 김치톡톡냉장고 일부 모델 판매 금액 중 1%를 적립한 기금으로 실행됐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이어왔다.

LG전자 임직원들이 봉사활동하는 모습. /LG전자

사랑의 김치나눔은 2013년부터 매년 시행했으며, 올해까지 김장김치 2만9000kg을 이웃들에 나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제주항공, 임직원 기부로 '사랑의 연탄나눔'

제주항공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제주항공은 임직원 60여명이 지난 7일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의 연탄 나눔 행사는 나눔의 기쁨과 보람을 함께 느끼자는 취지에서 제주항공이 2년째 진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이날 제주항공은 지난달부터 약 한달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연탄 1만6000장을 모아 전달했다.

제주항공은 누구나 함께 연탄을 기부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3일까지 제주항공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연탄기부 게시물을 댓글로 응원하고 알리면 그 숫자만큼 제주항공이 연탄을 기부하게 된다. 제주항공은 이외에도 구성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재능을 활용해 보육원에 애착인형을 전달하고 항공안전체험교실, 해외의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올해로 2년째 진행 중인 연탄나눔 행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주항공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제주항공의 임직원들이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항공

/김수지 기자 sjkim2935@

기업이 정부를 대신한다?

기자 수첩

김 재 웅 〈산업부〉

인간 문명 역사에서 성공한 정부는 단 한번도 없었다.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에 봉착했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실패를 반복하는 연속이었다.

자본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유력한 해결 방안은 기업이다.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이익을 취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개발, 복지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에일리언 등 일부 SF영화에서 이런 미래를 어둡게 그리기는 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대안으로 논의되는 분위기다. 작은 정부와 큰 기업, 전 세계 부자들이 앞다퉈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이다. 발렌베리그룹은 국가로부터 경영 승계를 보장받는 대신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으며, 5대에 걸쳐 스웨덴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내 재계도 이런 변화를 따를 준비를 시작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전세계 기업들과 접촉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청년 교육과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 밖에 기업들도 사회 기여도를 높이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아직은 부족하다. 최근 몇년간 취업난은 더 심해지고 빈부격차도 더 커졌다. 그럼에도 기업은 여전히 무리하게 채용 규모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국민 정서도 아직은 반기업에 가깝다. 최근 오너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차등의결권을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해주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부결됐다. 법정에 서는 재계 총수들을 향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재계가 조금 더 힘내주기를 바란다. 정부가 정책마다 연패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제 믿을 곳은 기업뿐이다. 기업과 국민의 '윈-윈'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juk@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9일 (음 11월 13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고정관념은 편견을 부른다. 48년생 고칠 수 없는 마음은 버려라. 60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탈출하자. 72년생 어항 속의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한 하루. 84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 가니 해결된다.

소 37년생 결심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49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61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73년생 가는 사람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 85년생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한 때도 있다.

호랑이 38년생 매번 해오던 일이 신물이 난다. 50년생 어여쁜 이성의 유혹이 있다. 62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웃지 않는다. 7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해야 한다. 86년생 어디에 행운이 있을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라.

토끼 39년생 탐구가 끝났으면 이제 실행. 51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마음이 기쁘다. 63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한 날. 75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87년생 아랫사람과 작은 마찰이 있다.

용 40년생 편견을 가지고 자녀를 보지 마라. 52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면 보답을 받는다. 64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하는 날. 76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라. 88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우선.

뱀 41년생 늘 하던 일이 낯설게 느껴진다. 53년생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 65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자. 77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니 깊이 생각. 89년생 오후에 운전 주의.

말 42년생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54년생 축제가 너무 빨리 끝난다. 66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무슨 소용. 78년생 부모님의 조언이 결정적 역할. 90년생 일은 적극적으로 행동.

양 43년생 친구로 인해 곤란을 겪는다. 55년생 자식의 재능이 너무 많아 오히려 곤란. 67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이 피곤한 날. 79년생 집안에 즐거운 일이 생기니 기쁘다. 9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할 일을 찾아라.

원숭이 44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라. 56년생 주변의 속삭임이 많으나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전진. 68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80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온다. 92년생 사회에서는 신용이 우선.

닭 45년생 해외로 나갈 일이 생긴다. 57년생 나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지 마라. 69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잘 마무리. 81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은 잊는 법이니 서운해 마라. 93년생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 마라.

개 46년생 조언도 사람을 봐가며 따라라. 58년생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개척. 70년생 변화의 기운이 있으니 옷차림에도 신경. 82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 94년생 몸이 피곤한 날이니 우선은 휴식하자.

돼지 47년생 내일을 위해 돈을 아껴야 한다. 59년생 부부간에도 존중과 배려를. 71년생 사랑에는 언제나 약간의 망상이 있는 법. 83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조금 양보. 95년생 열심히 노력하면 운도 따른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1	5				8	4	9
8			9		5			6
3								5
	3			8			9	
			3		4			
	8			2			5	
4								2
2			6		7			1
9	6	3				4	7	8

7								5
		2	5		3	8		
	8		1		6		3	
	4	6	8		1	9	2	
	2	5	9		7	1	6	
	6		4		9		7	
		3	7		5	2		
2								6

스도쿠 정답

8	7	4	2	5	1	3	6	9
1	3	9	7	4	6	8	5	2
2	5	6	3	9	8	1	7	4
3	6	5	9	2	7	4	8	1
7	8	1	4	6	3	9	2	5
4	9	2	1	8	5	7	3	6
9	4	8	6	1	4	2	9	3
6	1	3	5	7	9	6	4	8
5	2	7	8	3	2	5	1	9

5	9	4	8	1	3	7	2	6
1	2	3	6	9	7	4	8	5
8	7	6	4	5	2	9	3	1
2	4	5	9	7	6	1	8	3
3	1	7	5	2	4	8	6	9
9	6	1	3	8	4	2	5	7
7	3	2	1	6	9	5	4	8
4	5	8	2	3	1	6	9	7
6	8	9	7	4	5	3	1	2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잘 사는 삶

태어나고 사라지는 많은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인생살이에 정답은 없지만 나은 답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가장 흔히 보게 되는 유형은 착한 사람과 영악한 사람일 것이다. 두 유형 중에 누가 세상살이에 더 유리할까. 당연히 영악한 사람이 유리하다. 영악하다는 건 약삭빠르고 이익을 잘 챙긴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산기를 잘 두들길 줄 알고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착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남의 입장도 생각한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미국 사회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영악한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고 한다. 뒤통수치는 영악한 부류에게 사람들이 반드시 반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착한 사람은 조금씩 손해를 보지만 믿을 수 있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쌓아온 것들이 긴 인생을 보면 결국은 이익을 가져온다. 이런 결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잘 사는 삶의 토대라는 걸 일깨워준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가르침 팔정도에서는 정사유, 정어, 정업을 강조한다. 정사유는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정어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정업은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걸 이른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여덟 가지를 다 지키는 게 물론 가장 좋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대중들은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공덕을 쌓으면 자기가 살아가는 당대 아니면 후대에 그 공덕이 은덕으로 돌아온다. 착하게 사는 게 때로는 힘들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기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런 세상 이치를 알고 계셨기에 남을 위한 자비와 보시를 말씀하셨다. 바름을 강조한 불교의 가르침을 생각해보자.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43호